



즉시 배포용: 2021년 9월 28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의료진 백신 의무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데이터 공개

*지난 4주 동안 백신 접종을 상당히 증가. 월요일 저녁 시점에서 양로원 직원의 92%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는 71%에서 증가한 수치임*

*월요일 저녁 시점으로 병원 직원의 92%가 사전 자체 보고 데이터를 준수하고 있음*

*월요일 저녁 시점으로 성인 요양 시설 직원의 89%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는  
77%에서 증가한 수치임*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의료 시설이 보건부에 보고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주 전역에서 의료 직원의 백신 접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보는 병원과 양로원에 있는 의료진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보를 통해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취약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의료 종사자들이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며 저는 추이를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의 잠재적인 인력 부족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Hochul 주지사가 취임한 이후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의료 종사자의 백신 접종률은 마감일을 앞둔 지난 주에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 최소 1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양로원 직원의 비율은 8월 24일 71%, 9월 20일 82%에서 월요일 저녁 시점으로 92%로 증가했습니다.
- 최소 1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성인 요양 시설 직원의 비율은 8월 24일 77%, 9월 20일 85%에서 월요일 저녁 시점으로 89%로 증가했습니다.

- 월요일 저녁 시점으로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받은 병원 직원의 비율은 예비 자가 보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92%입니다. 완전 백신 접종 비율은 월요일 저녁 기준으로 85%로 9월 22일 84%, 8월 24일 77%에서 증가했습니다.

보건부는 2021년 9월 27일 의료 시설에서 근로자의 백신 접종 상태를 판별하기 위해 병원, 양로원 및 성인 요양 시설을 대상으로 1회 건강 전자 응답 데이터 시스템(HERDS)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매일 숙련 간호 시설과 성인 치료 시설에서 자체 보고하는 정보로 매일 업데이트되는 [코로나19 백신 추적기 장기 요양 백신 접종](#) 웹페이지와 개별 병원에서 자체 보고한 정보로 매주 업데이트되는 [백신 추적기 병원 직원 백신 접종](#) 웹페이지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통계 숫자

### 병원

주 전역에 있는 병원에는 총 519,109명의 직원이 있으며 347,217명의 직접 진료/환자 대면 직원이 있습니다.

- 전체 직원의 92.3%, 직접 진료 직원의 93.3%가 최소 1회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 85.2%의 직원이 백신을 모두 접종 완료했으며 추가로 7%의 직원이 1회 접종을 받았습니다.
- 이러한 비율은 직접 진료 직원들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86.3%의 직원이 백신을 모두 접종 완료했으며, 7%의 직원이 1회 접종을 받았습니다.
- 의료진의 4.9%가 백신 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의료진의 경우 4.7%로 약간 낮게 나타납니다.
- 2.4%의 직원이 백신 접종을 받을 예정이지만 여전히 1회 접종을 대기하고 있으며 0.5%의 직원이 의료적으로 부적격입니다.
- 이러한 비율은 직접 진료 종사자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1회 접종을 대기하고 있는 비율은 1.6%, 의료적으로 부적합한 비율은 0.4%입니다.

### 양로원

주 전역에 있는 병원에는 총 143,753명의 직원이 있으며 92,260명의 직접 진료/환자 대면 직원이 있습니다.

- 전체 직원의 92.6%, 직접 진료 직원의 92.3%가 최소 1회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 81.1%의 직원이 백신을 모두 접종 완료했으며 추가로 11.5%의 직원이 1회 접종을 받았습니다.
- 이러한 비율은 직접 진료 직원들 사이에서도 약간 낮게 나타납니다. 79.1%의 직원이 백신을 모두 접종 완료했으며, 13.2%의 직원이 1회 접종을 받았습니다.
- 의료진의 5.7%가 백신 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 비율은 직접 의료진 사이에서 6%로 약간 높게 나타납니다.
- 1.3%의 직원이 백신 접종을 받을 예정이지만 여전히 1회 접종을 대기하고 있으며 의료적으로 부적합한 비율은 0.4%입니다.
- 이러한 비율은 직접 진료 종사자 사이에서도 매우 비슷합니다. 1회 접종을 대기하고 있는 비율은 1.3%, 의료적으로 부적합한 비율은 0.5%입니다.

## 성인 보호 시설

주 전역에 있는 병원에는 총 29,464명의 직원이 있으며 15,395명의 직접 진료/환자 대면 직원이 있습니다.

- 전체 직원의 89.3%, 직접 진료 직원의 88.7%가 최소 1회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 82.9%의 직원이 백신을 모두 접종 완료했으며 추가로 6.4%의 직원이 1회 접종을 받았습니다.
- 이러한 비율은 직접 진료 직원들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81%의 직원이 백신을 모두 접종 완료했으며, 7.7%의 직원이 1회 접종을 받았습니다.
- 의료진의 6.6%가 백신 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 비율은 직접 의료진 사이에서 7%로 약간 높게 나타납니다.
- 3.5%의 직원이 백신 접종을 받을 예정이지만 여전히 1회 접종을 대기하고 있으며 의료적으로 부적합한 비율은 0.6%입니다.
- 이러한 비율은 직접 진료 종사자 사이에서도 거의 동일합니다. 1회 접종을 대기하고 있는 비율은 3.7%, 의료적으로 부적합한 비율은 0.6%입니다.

월요일 밤, Hochul 주지사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추가 의료 종사자가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보건부가 이끄는 24/7 운영 센터를 통해 주 전체의 직원 운영 및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의료 시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제공업체와의 긴급 상황 해결을 지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지사는 계속해서 지역 선출 공무원, 병원, 노동 지도자 및 기타 의료 단체와 함께 인력 상태를 확인하고 주정부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규정에 따르면, 뉴욕주의 병원 및 양로원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의료 종사자는 9월 27일 월요일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아 하며, 자택 간호, 호스피스, 성인 간호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0월 7일까지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뉴욕주에서 근무하는 모든 다른 주 거주자 및 계약직 의료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

[구독 취소](#)